

머릿말: 회칙의 렌스

Justin Carisio, OFS
국가 양성위원장

우리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에 대하여 이야기 할때, 본회의 성격이나, 재속 프란치스코인들이 서약한 삶의 길이나, 형제회 안에서의 삶, 등등 ...을 설명한, 1978 년 회칙 26 조에 초점을 맞추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이 규칙 조항에 앞서 성 프란치스코가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신 첫권고 즉 “머릿 말을 소홀히 하는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머릿말야말로 회칙에 대한 공부나, 토론, 또는 묵상의 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사려 깊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머릿말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1209 년과 1215 년 사이 언젠가 쓰신 원본이다. **회칙**의 영어판과 함께 나온 머릿말 번역본은 Marion A. Habig, OFM 이 낸 것이다. 당시의 학계 상황이 잘 반영된 이 번역본은 ‘*최초의 권고*’라고 알려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초기 자료집, 1 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취를 따라 살펴보면, 이 자료에 불려진 이름은 다양하다. 예로 *충실히 따르는 모든이들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Volterra text*” 등등.)

*최초의 권고*는 “미완성 회칙”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원래 이것이 하나의 권고였기 때문에, 성인 자신이 벌리고 있는 운동에 처음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위하여 마련한 “생활양식”의 모습이였다. 이 남녀 신입회원들은 회개생활을 통하여 보다 충실하게 그들이 세례때의 맹서를 더욱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였다. 이 초기권고가 머릿말로 바뀐 것은 신비에 가깝기도 하다. Robert Stewart, OFM 이 추진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에 대한 고전적 연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 회칙에 삽입되게 된 것은 수도회의 네 총장들이 회칙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설명도 없이 후에 삽입시킨 것이고, 이에 더 하여, 1978 년의 회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초기권고가 렌스로 남게 된 것이다.

물리적으로 말하여, 렌스란 “어떤 것에 광성의 초점을 맞추어 형상을 찾아 가는 것”이다. 또한 조형적으로 말하여 “이것은 지각이나 이해력 혹은 판별력에 영향을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머릿말은 우리 회칙에 대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재속 프란치스코인 정체성의 모습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 형제, 어머니 “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길이 삼위일체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가톨릭적이어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있다. 이것은 수도회의 설립 영적 은사인 회개정신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줌을 통하여 프란치스코인이라는 자각심을 새롭게 해 준다. 또다른 프란치스코인 초기 자료인, *새동료의 전기*, 에서 프란치스코와 첫 수도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는 질문에, “답하기를 간단하게 우리는 아씨시 태생의 회개하는 사람들 (강조하여)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Raffaele Pazzelli, TOR 은 자신이 쓴 3 회 수도회의 역사서에서, 시대가 흘러감에도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수도회에서 회개를 그들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회칙 7 조에서도 서약에의 부름에 응한 이들을 “회개하는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다. 현대의 교회에서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무엇인가를 회개라고 생각해 왔다. 실지로, 회칙 7 조에도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다. Lino Temporni, TOR,는 강조하기를 프란치스코인 영성에서 ‘회개’란 성서적 의미로서 메타노이아와 같은 것으로서, 하느님에게로의 마음의 철저한 변화로 인식됐으며, 지속적인 상태를 뜻한다. 이것은 회개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회개란 어떠한 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에게로 향한 하나의 여정인 것이다.”

첫 권고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될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회개를 *하쥌다*고 결심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리가 강조하는 다섯가지를 넘어서 실천하기를 권하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죄에 대한 유혹을 미워 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라; 회개의 좋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눈에 뜨이고 확실한 무엇인가로 보여주겠다는 그의 의도는 틀림없는 것이니, 우리의 삶이란 “다른 이들에게 모범으로 생명까지 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릿말의 렌스로 우리의 회칙을 바라볼 때, 프란치스코는 “회개의 삶을 끌어 안는 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요, 이 변화는 예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40 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첫권고*가 1978 년의 재속 프란치스칸 회칙의 머릿말이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다. 머릿말은 우리로 하여금 수 세기를 통하여 재속 프란치스칸 초기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것은 우리를 회개와 거룩함으로 불러 주었다. 또한 이것은 회개함을 거부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세상의 노예”로 만들며 그 결과는 현세와 내세를 통하여 올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아씨의 회개하는자, 프란치스코의 명확한 목소리와 정신이 오늘 날의 우리 형제회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P.S. 본문의 참고사항은 생략하였음